Witold Lutosławski (1913–1994)

- Symphony No. 1
  - □□
- Symphony No. 2
  - □□
- Symphony No. 3
  - □□
- Symphony No. 4
  - □□
- Piano Concerto
  - □□
- Cello Concerto
  - □□
- Concerto for Orchestra
  - □□
- Funeral Music
  - □□

- Chain 2 for violin and orchestra
  - □□
- Livre pour orchestre
  - □□

Symphony No. 1

정보

Witold Lutosławski: *Symphony No. 1*

- 작곡가 : Witold Lutosławski (1913–1994)
- 작품명 : *Symphony No. 1*
- 장르 : 관현악을 위한 4악장 교향곡
- 작곡 시기 : 1941–1947년
- 초연 : 1948년 4월 6일 , Katowice, Grzegorz Fitelberg 지휘 , 폴란드 라디오 대교향악단
-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Symphony_No.*1*(Lutos%C5%82awski)

Witold Lutosławski의 *Symphony No. 1*은 제 2차 세계대전 중에 구상하기 시작해 1947년에 완성한 네 악장 관현악 교향곡이다 . `Allegro giusto`, `Poco adagio`, `Allegretto misterioso`, `Allegro vivace`가 차례로 이어지며 , 전통적인 교향곡의 외형 안에서 복잡한 리듬과 높은 반음계성 , 세밀하게 분할된 관현악 색채를 사용한다 . 전쟁 중 쓰였지만 특정 사건이나 장면을 묘사하는 표제음악은 아니다 .

개요

루토스와프스키는 1941년에 이 교향곡을 쓰기 시작했다 . 1944년 바르샤바 봉기 때에는 어머니와 함께 피신하면서 작업 중인 악보를 가져갔고 , 전쟁이 끝난 뒤 1947년에 나머지 악장을 완성했다 . 그는 훗날 이 작품이 전쟁 전에 구상한 '명랑한 ' 성격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 따라서 작곡 시기의 역사적 압박과 음악이 직접 전쟁을 묘사한다는 해석은 구분해야 한다 .

그제고시 피텔베르크가 지휘한 초연은 1948년 4월 6일 Katowice에서 열렸다 . 초연은 호평을 받았지만 , 이듬해 폴란드에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공식 미학으로 자리 잡으면서 작품은 '형식주의 '라는 비판을 받았고 한동안 연주회장에서 사라졌다 . 1950년대 후반 해빙기부터 재공연과 출판이 이어졌으며 , 1981년에는 루토스와프스키가 베를린 필하모닉을 직접 지휘해 이 작품을 다시 연주했다 .

루토스와프스키 협회의 작품 해설은 이 교향곡을 고전적인 네 악장 틀과 현대적인 음고 ·리듬 언어가 만나는 초기 작품으로 설명한다 . 후기의 우연성 기법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 전통 형식 안에서 관현악의 밀도와 화성의 긴장을 조직한 방식이 이 작품의 위치를 더 잘 보여 준다 .

출판 정보와 자료

이 작품은 초연 지휘자 Grzegorz Fitelberg에게 헌정되었으며 , 폴란드 음악출판사 PWM과 Chester Music 에서 출판되었다 . 작품의 공식 카탈로그는 작곡 연대를 1941–1947년으로 기록하고 네 악장을 Allegro giusto, Poco adagio, Allegretto misterioso, Allegro vivace 로 제시한다.

소요 시간

전곡은 약 25분이다. Edward Gardner와 BBC Symphony Orchestra의 Chandos 녹음은 24분 36초이며, 악장별 시간은 제 1악장 4분 30초, 제 2악장 10분 15초, 제 3악장 4분 24초, 제 4악장 5분 13초다. 반복과
템포에 따라 실제 연주 시간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편성

목관: 플루트 2(한 대는 피콜로 겸함), 오보에 3(한 대는 잉글리시 호른 겸함), 클라리넷 3(피콜로
클라리넷과 베이스 클라리넷 포함), 바순 3(한 대는 콘트라바순 겸함)
금관: 호른 4, 트럼펫 3, 트롬본 3, 튜바
타악기: 팀파니, 큰북, 차임, 심벌즈, 작은북, 서스펜디드 심벌, 탐탐, 탬버린, 우드블록, 실로폰 등
기타와 현악: 첼레스타, 하프, 피아노, 현악기

관현악 규모는 후기 낭만주의의 대편성에 가깝지만, 악기군을 한꺼번에 울리기보다 서로 다른 음역과 음색을 맞물리게 한다. 편성표에서 피콜로 ·잉글리시 호른 ·베이스 클라리넷 ·콘트라바순은 기본 악기의 겸주로 표시되며, 첼레스타와 하프, 피아노가 금관과 타악기의 강한 음향 사이에 다른 색을 보탠다.

악장별 구성

I. Allegro giusto

첫 악장은 D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고도로 반음계적인 소나타 형식이다. 첫 주제는 하나의 긴 선율보다 짧은 동기와 대위적 모방이 이어지는 묶음으로 제시된다. 두 번째 주제는 D-flat에서 시작하는 서정적인 선율이며, 이후 동기 파편과 카논으로 다시 조직된다. Steven Stucky는 이 악장을 중심음이 분명하게 남아 있는
소나타로 설명해, 조성의 흔적과 화성의 이동을 함께 듣게 한다.

II. Poco adagio

느린 악장은 독주 호른의 긴 선율로 시작한다. 낮은 현의 반음계 반주가 그 선율 아래에서 움직이고, 목관은 선율을 이어받거나 짧게 끊어 놓는다. 형식은 첫 부분이 변형되어 돌아오는 A–B(A′)–B′–A″ 구조로 설명할 수 있다. 오보에가 내놓는 두 번째 주제는 행진곡처럼 움직이지만 익살스러운 굴곡을 지니며, 이 대목은 Prokofiev의 그로테스크한 어법과 비교되어 왔다. 첫 주제의 어두운 선율과 저음 현의 반주는 Bartók의 관현악 작품을 연상시키는 색채를 만든다.

III. Allegretto misterioso

세 번째 악장은 트리오를 포함한 느슨한 스케르초다 . 주제와 왈츠풍의 대목이 번갈아 나타나고, 중간에는
금관과 타악기가 흐름을 거칠게 끊는다. 저음 현의 피치카토로 시작하는 특정 재료에는 12음렬에 가까운 음 배열이 쓰인다. Charles Bodman Rae의 분석은 이 재료가 두 개의 6음군과 그 변형으로 조직된다고
설명하지만 , 이를 전곡이 엄격한 12음기법으로 작곡되었다는 뜻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루토스와프스키는 이 악장을 전쟁 장면의 음악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전쟁 중 작곡되었다는 사실은 작품의 배경이지만 , misterioso 가 가리키는 것은 구체적인 사건보다 불안정한 리듬과 음색의 진행이다.

IV. Allegro vivace

피날레는 브람스 교향곡의 일부 피날레를 모델로 삼은 대형 소나티나 형식으로 설명된다. 첫 주제는 목관과 연결되고, 트리톤 관계의 동기가 제 1바이올린에 나타난다. 전환부를 금관이 밀어붙인 뒤 독주 바이올린이
서정적인 두 번째 주제를 제시한다. 여러 악기군이 짧은 동기를 주고받으며 절정으로 향하고, 거대한 다화음의 울림이 가라앉은 뒤 D장조의 종지로 빠르게 질주한다.

수용과 연주

이 교향곡의 수용사는 음악적 형식과 정치적 제약이 겹친 사례다. 초연 직후에는 중요한 신작으로
호평받았지만 , 1949년 이후 ‘형식주의 ’라는 낙인이 작품의 연주 기회를 막았다. 1957년 무렵 출판이 재개되고 1959년 재공연이 이루어졌다는 기록과, 약 10년 뒤 Leopold Stokowski가 다시 연주했다는 기록이 함께 남아 있다. 두 기록은 금지에서 재등장으로 이어진 과정을 보여 주지만, 각각의 공연이 같은 사건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1981년 베를린 필하모닉 공연에서 루토스와프스키가 직접 지휘한 사실은 이 작품을 후기 작품으로 향하는 전 단계로만 보기는 어렵게 한다. 다만 이 곡에서 후기의 제한된 우연성 기법이나 자유로운 시간 구조를 찾기보다, 고전적 악장 배열과 대위적 동기, 반음계적 관현악을 한 작품 안에서 결합한 초기 언어에 주목하는 편이 정확하다.

주요 레코딩

Edward Gardner / BBC Symphony Orchestra (2012년 녹음, Chandos CHSA 5108):
전곡 24분 36초의 트랙별 시간이 공개되어 있으며, 작품의 네 악장 구조와 현대 오케스트라 편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하다.
Esa-Pekka Salonen / Los Angeles Philharmonic (Sony Classical): 루토스와프스키의
교향곡을 국제적인 현대 오케스트라 레퍼토리 안에서 다룬 녹음으로, 작품의 디스코그래피와 발매
정보가 공식 목록에 남아 있다.
Stanisław Skrowaczewski / NFM Wrocław Philharmonic (CD Accord ACD196): 루토스와프스키 교향곡 전집의 일부로 발매된 녹음이다. 작품별 발매 식별자는 작곡가 협회 디스코그래피에 기록되어 있다.
Antoni Wit / NOSPR (Naxos 8.554283): 폴란드 국립 라디오 교향악단과 함께한 녹음으로, Naxos 발매 목록에서 작품의 음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자료

Witold Lutosławski Society, Catalogue raisonné: 작품의 작곡 연대, 네 악장, 헌정, 초연, 편성
약호, 악장별 분석.
Berliner Philharmoniker, “Witold Lutosławski’s First Symphony”: 사회주의 리얼리즘 시기의
금지와 재공연, 1981년 베를린 필 공연, 작곡가의 자기 설명.
American Symphony Orchestra, “Symphony No. 1 (1947)”: 전쟁 중 작곡 경로, 바르샤바 봉기,
전쟁 표제 해석에 대한 작곡가의 태도.
Los Angeles Philharmonic, “Symphony No. 1”: 초연과 재공연, 악장별 형식 ·화성 ·주제 분석, 상세 편성.
Chandos, CHSA 5108: Edward Gardner와 BBC Symphony Orchestra의 녹음 정보와 악장별 시간.
Witold Lutosławski Society, Discography: Salonen, Skrowaczewski, Antoni Wit, Lutosławski 지휘 녹음의 발매 식별자.

Symphony No. 2

정보

Witold Lutosławski:

Symphony No. 2

개요
곡명: Symphony No. 2
작곡가: Witold Lutosławski (1913–1994)
작곡 시기: 1965–1967년
장르: 오케스트라를 위한 교향곡
구성: Hésitant와 Direct의 두 부분, 중단 없이 이어지는 연속 형식
위촉: Norddeutscher Rundfunk의 Das Neue Werk 100회 콘서트
부분 초연: 1966년 10월, Hamburg, Pierre Boulez 지휘, 북독일 방송 교향악단
전곡 초연: 1967년 6월 9일, Katowice, Lutosławski 지휘, 폴란드 라디오 교향악단
출판: PWM, Chester Music

IMSLP: Witold Lutosławski 작품 분류

Wikipedia: Symphony No. 2 (Lutosławski)

Witold Lutosławski의 Symphony No. 2는 1965–67년에 완성한 대편성 교향곡으로 , Hésitant와 Direct라는 두 부분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는다. 앞부분은 짧은 에피소드와 느린 리프레인이 결론을 미루고, 뒷부분은 여러 음향 층을 한 방향으로 밀어붙여 절정과 에필로그에 이른다. 각 성부의 리듬을 느슨하게 맞추는 제한된
우연성이 이 구조를 움직이지만 , 음고와 전체 형식은 작곡가가 통제한다.

위촉과 초연

이 교향곡은 Hamburg의 Norddeutscher Rundfunk가 새로운 음악 시리즈 Das Neue Werk의 100회 콘서트를 기념해 위촉했다. Lutosławski는 두 부분 가운데 Direct를 먼저 완성했지만 전곡을 제때 끝내지 못해 , 1966년 Hamburg 공연에서는 Pierre Boulez가 북독일 방송 교향악단을 지휘해 Direct만 연주했다. 이 부분의 날짜는 기관별 기록에 따라 10월 15일 또는 10월 18일로 갈린다.

두 부분을 모두 갖춘 전곡은 1967년 6월 9일 Katowice에서 작곡가 자신의 지휘와 폴란드 라디오 교향악단의 연주로 처음 공개되었다 . 같은 해 Warsaw Autumn에서 재연되었고 , 1968년 Paris에서 열린 UNESCO International Rostrum of Composers에서는 이 작품의 라디오 녹음이 1등을 받았다. 부분 초연 날짜는 자료에 따라 달라지고, 전곡 초연은 1967년 6월 9일로 일치한다.

소요 시간

전곡은 대체로 약 30분이다. 두 부분의 길이는 거의 같다는 작곡가 재단의 설명이 있으며, 실제 녹음은 26 분대에서 27분대까지 나타난다. Simon Rattle과 Berliner Philharmoniker의 녹음은 26분 08초, Jacek Kaspszyk와 NFM Wrocław Philharmonic의 녹음은 27분 21초로 기록된다. 이는 템포와 녹음 편집의 차이를 보여 주는 사례이지, Hésitant와 Direct에 고정된 규범 시간을 부여하는 수치는 아니다.

편성

Witold Lutosławski Society의 총보 약호는 피콜로를 겸하는 플루트 세 대, 잉글리시 호른을 겸하는 오보에
세 대, 베이스 클라리넷을 겸하는 클라리넷 세 대, 콘트라바순을 포함하는 바순 세 대, 호른 네 대, 트럼펫 세 대 , 트롬본 세 대, 튜바를 가리킨다. 여기에 팀파니와 세 명의 타악기 연주자, 첼레스타, 하프, 피아노 두 대, 현악 5부가 더해진다. Society가 제시하는 현악 인원은 16·14·12·9·6이며, 다른 기관 카드는 호른 수나 현악
인원을 다르게 적으므로 세부 수는 대여 악보와 판본에 따라 달라진다.

이 편성은 악기군을 고정된 블록으로 쌓기보다 서로 다른 색채와 시간 길이를 겹치는 데 쓰인다. Hésitant 에서는 오보에, 잉글리시 호른, 바순의 느린 리프레인이 여러 작은 조합 사이에 놓이고, Direct에 들어가면
현악이 더 긴 호흡과 큰 음량을 얻는다. 이 대비가 두 부분의 형식적 차이를 음향으로 드러낸다.

Hésitant: 에피소드와 리프레인
프랑스어 Hésitant는 망설이는 태도를 뜻한다. 이 부분은 비교적 활기 있는 짧은 에피소드가 차례로
나타나지만 , 에피소드에 참여하지 않은 목관이 연주하는 느린 리프레인이 되돌아오면서 매번 결론을 미룬다. Society의 상세 해설은 일곱 에피소드가 서로 다른 악기 조합과 음정 선택을 가진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Hésitant는 단순한 도입부나 완결된 첫 악장이 아니다. 각각의 사건은 잠시 선명해졌다가 리프레인에
의해 가라앉고, 마지막 에피소드와 리프레인이 가장 복잡한 상태에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갈 준비를 한다. 마지막 리프레인의 일부 음향이 Direct의 시작 뒤까지 겹친다는 해설은 두 부분이 실제 소리에서도 분리되지 않음을 보여 준다.

Direct: 한 방향의 대형
Direct는 앞부분의 유보와 반대로, 여러 음향 사건이 한 방향으로 전진하는 부분이다. Society와 작곡가의 프로그램 설명은 이를 다섯 국면으로 나누며, 느린 흐름과 빠른 층의 중첩, 빠른 시간으로의 전환이 차례로 나타난다고 말한다. 네 번째 국면만은 전통적인 박과 지휘로 진행되는 구간이고, 나머지는 각 성부의 독립적인 리듬을 허용한다.

이 부분의 절정에서는 흩어진 층이 가장 큰 밀도로 모인 뒤, 에너지가 서서히 빠져나가 조용한 에필로그로 사라진다. 따라서 제목의 Direct는 Hésitant에서 계속 보류된 방향을 마침내 하나의 결과로 정렬하는 형식적 태도를 가리킨다.

제한된 우연성의 작동

Lutosławski의 제한된 또는 통제된 우연성은 연주자가 음을 임의로 고르는 즉흥이 아니다. 작곡가는 음고, 음정 집합, 악기 조합, 각 국면의 순서와 큰 형식을 지정하고, 특정 구간에서는 성부마다 공통 박 없이 자신의 리듬을 조금씩 늘이거나 줄이도록 한다. 연주자는 악보에 적힌 음과 순서를 지키면서 서로 다른 시작 ·종료 시점을 만들어 낸다.

대부분의 구간은 ad libitum으로, 한 성부가 지정된 단위를 반복하는 동안 지휘자가 다음 전환을 알린다. Direct의 네 번째 국면처럼 전통적인 지휘와 박을 사용하는 구간이 사이에 놓여 작품 전체의 음향이 통제된
형식 안에서 수렴한다. Society가 이를 ‘알레아토리적 대위법 ’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각 성부의 독립성이
통제된 화성과 형식 안에서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이다.

작품사적 위치와 녹음

Lutosławski는 Funeral Music, Jeux vénitiens, 현악 사중주, Trois poèmes에서 시험한 12음 화성, 음향 층, 통제된 우연성을 이 교향곡에서 대형 관현악 형식으로 종합했다. 그의 재단은 제 1교향곡의 전통적인 네 악장과 달리 이 작품이 두 부분의 닫힌 형식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하며, 이를 1960년대 양식 전환의 중요한 지점으로 위치시킨다 .

공식 디스코그래피에는 작곡가가 폴란드 라디오 교향악단을 지휘한 1960년대 녹음, Esa-Pekka Salonen, Antoni Wit, Simon Rattle, Edward Gardner, Jacek Kaspszyk 등의 녹음이 포함된다. MusicWeb의 2010년 비평은 Kaspszyk의 2009년 녹음이 Hésitant의 유보를 더 조심스럽게 드러내고 음향 층과 대비를 선명하게 포착한다고 평가하면서 , 작곡가 자신의 1970년대 녹음은 더 거칠게 겹치는 음향으로 들린다고 비교한다. 2016년 비평은 Rattle의 2013년 실황 녹음이 Direct의 통제된 우연성을 따라가는 데 상당한 집중을
요구하지만 , Berliner Philharmoniker의 색채와 세부가 두드러진다고 설명한다. 각 평가는 해당 녹음에
귀속된 청취 판단으로, 서로 다른 선택을 비교하게 한다.

주요 자료

Witold Lutosławski Society, Catalogue raisonné

Witold Lutosławski Society, 제한된 우연성과 양식 해설

Witold Lutosławski Society, 연대기

Witold Lutosławski Society, 디스코그래피

Wise Music Classical, Symphony No. 2

Culture.pl, Symphony No. 2

Lutosławski Society 프로그램 해설 PDF

- IRCAM, Symphony No. 2
- MusicWeb, Kaspszyk·NFM Wrocław □□ □□
- MusicWeb, Rattle·Berliner Philharmoniker □□ □□

Symphony No. 3

정보

개요
곡명: Symphony No. 3
작곡가: Witold Lutosławski (1913–1994)
장르: symphony
작곡 시기: 1972년 스케치와 1974년 위촉을 거쳐 1981–1983년에 집중적으로 완성
초연: 1983년 9월 29일, 시카고, Chicago Symphony Orchestra, Georg Solti 지휘
헌정: Georg Solti와 Chicago Symphony Orchestra
성격: 네 음 E 신호와 통제된 우연성이 복잡한 음향을 묶는, 휴지 없이 연주되는 두 부분의 대편성 교향곡이다 .

Lutosławski의 제 3번 교향곡은 오랜 스케치와 위촉의 시간이 한 번에 응축된 작품이다. 작곡가는 1972년부터 재료를 구상했고, 1974년 Chicago Symphony Orchestra의 위촉을 받은 뒤에도 다른 작업 때문에 악보를
미뤄 두었다. 1981년에 집중적으로 작업을 재개해 1983년 1월 말 전체 악보를 완성했다. 초연은 그해 9월 29 일 시카고에서 Georg Solti와 Chicago Symphony Orchestra가 맡았다. 작품은 처음과 끝을 잇는 네 음 E, 전반의 에피소드, 후반의 노래하는 주제와 빠른 집단 진행을 한 번의 흐름 안에 배치한다.

위촉과 완성까지

Chicago Symphony Orchestra의 위촉은 John C. Stetson 부부의 기부로 가능해졌고 , Lutosławski는 초연 악단의 소리를 염두에 두고 편성을 다듬었다. 작곡가가 남긴 초연 프로그램 노트에는 작업을 오래 끌면서 한때 주된 악장을 버렸고, 1983년 1월에야 전체 악보를 마쳤다는 회고가 있다. 공식 작품 목록은 최종 작곡 연대를 1981–1983으로 분류하며, 출판사 자료는 1983년 1월 31일 완성일을 제시한다. 1972년 스케치와 1974년 위촉은 작품의 발생 과정이고, 1981–1983은 최종 악보를 만든 기간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 자료에 맞다.

세계 초연은 Chicago Symphony Orchestra의 1983–84 시즌 개막 행사로 열렸다. Lutosławski와 Solti, 오케스트라의 이름이 함께 헌정란에 오르는 만큼, 제 3번은 국제적 위촉 작품이면서 특정 악단의 음향을 전제로 한 교향곡이기도 하다. 초연은 WFMT 라디오로 녹음되었고 , 1992년에는 Daniel Barenboim과 Chicago Symphony Orchestra가 Erato를 위해 라이브 녹음을 남겼다.

두 부분으로 이어지는 형식

제 3번은 전통적인 여러 악장을 나열한 곡이 아니다. 짧은 도입 뒤에 준비적 성격의 첫 부분이 나오고, 이어서 본격적인 두 번째 부분과 에필로그, 코다가 휴지 없이 연결된다. 첫 부분은 세 에피소드와 느린 인터메조로
기대를 축적한다. 각 에피소드는 기본 박을 공유하면서 리듬 단위가 길어져 점점 느려지고, 클라리넷과 바순의

짧은 선율 및 네 음 신호가 단락 사이를 잇는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현악 푸가토와 피치카토 다성, 토카타풍 집단, 긴 노래 선율이 더 지속적인 진행을 만든다. 후반의 여러 투티는 하나의 절정으로 모이고, 느린 현악 레치타티보를 거쳐 빠른 코다가 마지막 음향을 결정한다.

도입과 에필로그를 두 부분의 바깥에 놓을지, 전체를 단악장으로 부를지는 설명 관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공통된 핵심은 음악이 중간에 멈추지 않고, 첫 부분이 두 번째 부분을 준비하며 두 번째 부분이 앞의 재료를 회수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단악장 ’이라는 단일 표제보다 ‘도입 ·에필로그 ·코다를 포함한 두 부분의 무중단 형식 ’이라고 설명하는 편이 내부 구조를 더 잘 드러낸다.

네 음 E의 표지

작품은 현악의 E에서 출발해 네 개의 E가 반복되는 금관 신호로 첫 공간을 나눈다. 같은 음형은 첫 부분의 에피소드와 인터메조 사이에서 다시 나타나며, 후반부의 첫 주제군과 코다에도 모습을 바꿔 남는다. 마지막에는 네 개의 포르테시모 E가 총주로 울려, 긴 진행을 단호하게 닫는다. 시작의 작은 신호가 끝에서 거대한 화음으로 돌아오는 셈이다.

이 네 음을 베토벤의 제 5번 교향곡을 연상시키는 운명 동기와 비교하는 해설이 있지만, Lutosławski가 베토벤의 주제를 직접 인용했다는 문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네 음은 특정 인물이나 사건을 가리키는
표제라기보다 , 서로 다른 시간과 음색을 하나의 구조로 묶는 음악적 표지로 기능한다.

통제된 우연성이 만드는 시간

Lutosławski의 제한된 또는 통제된 우연성은 무작위 즉흥과 다르다. 음높이, 음형, 악기 배치, 큰 형식은 악보에 정해져 있지만, 지정된 구간에서 연주자들은 공통 박에 맞추지 않고 각자의 악구를 수행할 수 있다. 지휘자는 시작과 끝,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는 시점을 통제한다. 그 결과 세부적인 리듬의 결합은 매번 달라지면서도 , 작품의 방향과 음정 재료는 흔들리지 않는다.

제 3번에서는 도입부와 전반의 에피소드에서 이러한 ad libitum 성격이 특히 두드러진다 . 본체와 에필로그로
갈수록 a battuta의 측정된 박과 정밀한 전환이 강화되어, 자유롭게 흩어진 음향이 하나의 지속적인 운동으로 수렴한다. 이 대비는 혼란과 질서 중 하나를 고르는 방식이 아니다.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악기군을
허용한 뒤, 필요한 순간에 전체를 함께 움직이게 하는 작곡 원리다.

대편성의 음색 설계

편성은 플루트 3(그중 2명은 피콜로 겸임), 오보에 3(제 3 오보에는 잉글리시 호른 겸임), 클라리넷 3(E♭ 클라리넷과 베이스 클라리넷 겸임), 바순 3(콘트라바순 겸임), 호른 4, 트럼펫 4, 트롬본 4, 튜바로 이루어진다 . 팀파니와 네 명의 타악기 주자, 하프 2, 네 손 피아노, 첼레스타, 현악이 더해진다. 타악기에는 실로폰,
글로켄슈필 , 마림바, 모터 없이 쓰는 비브라폰, 종, 톰톰 5, 봉고 2, 큰북, 사이드드럼 , 테너드럼, 탬버린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악기 수가 많아도 음향은 계속 분리되어 들린다. 금관의 네 음 신호는 단락의 경계를 선명하게 하고, 타악기와 건반은 짧은 입자를 보탠다. 전반의 에피소드에서는 서로 다른 악기군이 각자의 시간으로 움직이고,

소요 시간과 레퍼토리에서의 위치

출판사 자료는 약 28분을 제시하며, 실제 녹음은 지휘자와 연주 방식에 따라 30분 안팎까지 늘어난다. Chandos의 한 녹음은 30분 50초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작품의 일반적인 길이는 약 28–31분으로 설명할 수 있다. 휴지 없이 이어지는 형식과 대편성에도 불구하고, 제 3번은 음향을 무작정 밀어붙이지 않는다. 전반의 자유로운 시간, 후반의 정밀한 진행, 에필로그의 느린 호흡이 서로 다른 밀도를 만든다.

제 3번은 Lutosławski가 Symphony No. 2에서 탐색한 준비와 본론의 관계를 더 집중된 규모로 확장한 작품이다. 네 음 E는 청자가 복잡한 관현악 속에서 방향을 다시 찾게 하고, 제한된 우연성은 통제된 형식 안에 매 연주의 살아 있는 차이를 허용한다. 그래서 이 교향곡은 현대음악의 기법을 설명하기 위한 사례에 머물지 않고, 음색과 시간 조직이 한 번의 극적 진행으로 결합된 후기 관현악 레퍼토리로 남는다.

주요 자료

Witold Lutosławski Society, Catalogue raisonné
Wise Music Classical: Symphony No. 3
Chicago Symphony Orchestra, 125 Moments
Culture.pl: Symphony No. 3
American Symphony Orchestra 프로그램 노트
PWM 대여 악보 안내
Chandos CH5082 북클릿
Witold Lutosławski Society 디스코그래피 Wikipedia: Symphony No. 3

Symphony No. 4

정보

개요
곡명: Symphony No. 4
작곡가: 비톨트 루토스와프스키 (Witold Lutosławski, 1913–1994)
작곡 시기: 1988–1992년
완성: 1992년 8월 22일
위촉: Los Angeles Philharmonic, Betty Freeman 후원
초연: 1993년 2월 5일, Los Angeles Music Center의 Dorothy Chandler Pavilion에서 Los Angeles Philharmonic이 작곡가의 지휘로 연주했다.
출판: Chester Music, 일부 지역의 권리는 Polskie Wydawnictwo Muzyczne(PWM)
구성: 끊김 없이 이어지는 두 악장

IMSLP: Witold Lutosławski 작품 목록

Wikipedia: Symphony No. 4 (Lutosławski)

루토스와프스키의 네 교향곡 가운데 마지막인 제 4번은 느린 첫째 악장과 비교적 빠른 둘째 악장으로 이어진다. 작곡가는 앞부분을 준비부, 뒷부분을 본론으로 설명했다. 두 악장은 쉬지 않고 이어지지만 음악의 성격은
뚜렷이 바뀐다. 도입부의 낮은 E음과 클라리넷 선율은 빠른 관현악 삽화와 대비를 이루고, 둘째 악장에서는
노래하는 주제가 중심에 놓인다.

도입부가 들려주는 것

약음기를 사용한 현악기군이 낮은 E음을 반복하고 하프가 음색을 보태는 가운데, 클라리넷이 긴 선율을
연주하며 곡이 시작한다. Witold Lutosławski Society의 작품 해설은 반복 저음과 단 3도 화음, 클라리넷의 노래하는 선율, 하프의 음색이 도입부에서 맞물린다고 설명한다. 협회는 이 선율에 작품 전체를 특징짓는
노래의 성격이 담겼다고 본다. 이후 플루트가 선율에 합류하고 현악이 이를 넓혀 간다.

클라리넷 선율을 다른 악기가 이어받는 사이 빠른 삽화가 끼어들어 진행을 끊는다. 이 대비는 다음 악장을 준비하면서 작품의 서정성과 불안정한 음향을 함께 드러낸다.

출판 정보와 자료

원작은 Chester Music이 출판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Polskie Wydawnictwo Muzyczne(PWM)가 권리를 보유한다. 출판사 카탈로그에는 Christopher Austin이 2018년 Rambert Dance Company 공연을 위해 만든

축소 편성판도 실려 있다. 1972년 A maiori 스케치는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과의 앞선 작업에서 나온 별도 구상이며, 제 4번의 초고였다는 근거는 없다.

소요 시간

Los Angeles Philharmonic과 Wise Music Classical은 전곡을 약 22분으로 안내한다. Hannu Lintu가 Finnish Radio Symphony Orchestra를 지휘한 음반에서 이 곡은 약 21분이며, Esa-Pekka Salonen과 Los Angeles Philharmonic의 1993년 녹음은 21분이다. 음반의 트랙 길이는 서로 다를 수 있고, 실제 연주 시간은 지휘자의 템포에 따라 달라진다.

편성

목관은 플루트 3(제 3주자는 피콜로 겸주), 오보에 3(제 3주자는 잉글리시 호른 겸주), 클라리넷 3(제 2주자는 E-flat 클라리넷, 제 3주자는 베이스 클라리넷 겸주), 바순 3(제 3주자는 콘트라바순 겸주)이다. 금관은 호른 4, 트럼펫 3, 트롬본 3, 튜바 1로 구성된다.

타악기에는 팀파니와 큰북, 봉고, 튜블러 벨, 글로켄슈필 , 마림바, 작은북, 서스펜디드 심벌즈, 탐탐, 테너드럼, 톰톰, 비브라폰, 실로폰이 포함된다. 하프 두 대와 피아노, 첼레스타, 현악기도 필요하다.

두 악장과 하나의 연속된 음악

작곡가는 1993년 로스앤젤레스 초연을 앞둔 Los Angeles Times 인터뷰에서 첫 악장은 짧은 에피소드의
나열이 아니라 느린 도입이며 둘째 악장이 작품의 본론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해 영국 초연 전 The Independent 인터뷰에서 그는 첫 부분이 구획되지 않은 채 점진적으로 전개되고 미완결 상태로 둘째 악장을 준비한다고 덧붙였다. 첫 악장은 본론을 기다리게 하는 준비부이지만 선율과 삽화가 충분한 시간을 차지해 그 자체로도 무게가 있다.

그렇더라도 작곡가가 제시한 악장 구분이 청취자의 경험을 전부 규정하지는 않는다. 음악학자 Adrian Thomas는 도입부에서 주요 선율을 먼저 제시하고 둘째 악장에서 발전시키는 , 앞부분에 무게를 둔 구조로 이 곡을 읽는다. 이 관점에서는 두 악장의 경계보다 진술과 변주, 간주가 하나의 연속된 곡선을 만드는 방식이 더 중요해진다 . Thomas는 절정 뒤의 여파가 길게 이어지면서도 극적으로 충분히 다듬어지지 않았고, 코다도
다소 관습적이라고 평가한다. 그의 비평은 작품이 힘을 잃었다는 판단이 아니라, 마지막 절정에만 기대지 말고 도입부가 세운 중심에도 주목하자는 제안이다.

느린 첫 악장: 노래와 중단

클라리넷이 시작한 선율은 뒤이어 플루트가 받고, 현악은 악구를 더 넓은 호흡으로 이어 간다. Los Angeles Philharmonic의 작품 해설을 쓴 Steven Stucky는 이 선율이 부드러운 화음 배경과 짝을 이루며, 더 빠르고 예측하기 힘든 삽화가 그 사이에 끼어든다고 설명한다. 선율은 다른 악기로 이어지는 반면, 빠른 삽화는 그 흐름을 끊거나 뒤로 미룬다. 이 부분의 긴장은 큰 소리를 연달아 쌓는 데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진행 방식이 교차하는 데서 생긴다.

마지막에 현악이 선율을 확장할 때 작품은 강한 정점에 가까워지는 듯하지만, 그 힘은 완결된 절정으로
이어지지 않고 끊긴다. 작곡가가 인터뷰에서 말한 ‘완결되지 않은 도입 ’은 이 청취 경험과 연결된다. 첫 악장은 독립된 느린 악장처럼 느낄 만큼 선율적이지만 , 끝에서 다음 부분의 필요성을 남긴다.

둘째 악장: 추진력, 노래, 그리고 여파

둘째 악장은 빠른 16분음표 음형으로 속도를 높인 뒤, 무겁고 노래하듯 흐르는 grave cantabile 주제를 드러낸다. 이후 높은 음역에서 시작한 반짝이는 음향이 아래쪽 악기군으로 번진다. 독주 트럼펫과 세 대의 트롬본이 뒤따를 전개를 알리고, 앞서 들은 cantabile 선율이 더 큰 힘으로 돌아온다. 되돌아온 선율과 현악 · 금관의 강한 유니즌이 겹치는 곳에서 작품은 정점에 이른다.

하지만 그 절정이 곧 끝은 아니다. 뒤이어 음악이 회상하듯 잦아들어 비올라의 한 음까지 가라앉고, 짧고 밝은 코다가 곡을 닫는다. Stucky는 이 결말을 절정 이후의 여파와 코다로 설명한다. Thomas는 여파가 길게 이어지면서도 극적 구성이 충분히 다듬어지지 않았고 코다는 다소 관습적이라고 평가한다. 두 사람은 음악의 사건을 다르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결말에 부여하는 의미와 비중을 달리 본다.

기보된 음악과 연주자의 여지

제어된 우연성은 이 작품에서 중요한 요소지만 작품 전체를 설명하는 유일한 원리는 아니다. 선율과 명확하게 기보된 진행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협회 해설은 서정적이고 조성감을 떠올리게 하는 화성이 두드러져도 그 결과가 전통적인 조성 음악으로 바뀌지는 않는다고 설명한다. 노래하는 선율과 현대적인 음향 조직이 함께 놓인다.

Dalia Stasevska는 공연을 앞둔 인터뷰에서 마지막의 유머와 ‘파티 ’ 같은 분위기를 언급하고, 우연성 구간은 공연마다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휘자의 공연 전 해석이며, 실제 연주 결과에 대한 평은 아니다.

지휘자와 비평가가 들은 제 4번

Los Angeles Philharmonic이 위촉한 이 교향곡은 1993년 2월 5일 작곡가의 지휘로 초연되었다 . 그는 인터뷰에서 직접 지휘해야 자신의 작품을 소리로 확인하고 더 잘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해 9월 Warsaw Autumn에서도 제 4번을 지휘했다. Culture.pl은 그 공연을 작곡가의 마지막 폴란드 출연으로 기록하며, 실황 음반에는 The Last Concert라는 제목이 붙었다.

Los Angeles Times의 비평가 Daniel Cariaga는 2003년 공연에서 이 곡의 파편적이고 거친 면을
지적하면서도 , Salonen이 악상 사이의 흐름을 살려 설득력 있게 이끌었다고 평했다.

Salonen은 2019년 출판사 인터뷰에서 작품에 후기 브람스의 기운과 가을의 정서가 있다고 말했다. 이 표현은 교향곡의 객관적 의미가 아니라 지휘자 개인의 청취를 보여 준다.

Lintu와 Finnish Radio Symphony Orchestra의 2017–2018년 녹음을 들은 Richard Hanlon은 도입부의 지친 듯한 걸음과 그 뒤에 나오는 클라리넷, 후반의 세 독주 바이올린, 짧고 단호한 종결을 특히 인상적으로 꼽았다. 그는 Lintu가 도입부부터 종결까지 음악의 세부를 선명하게 연결한다고 평가했다. 앞선 작품을

□□□□ □□ □□□□ □□ □□□□□ □□□ □□□□ □□□ □□□□□ , □□ □□□ □□□ □□□
□□□□ . Cariaga□ Hanlon□ □□ □□ □□□□ □□□□ □□□ □□□ □□ □□□□ □□□□ .

□□ □□

- Los Angeles Philharmonic, *Symphony No. 4*
- Wise Music Classical, *Symphony No. 4 [4.Symfonia]*
- Witold Lutosławski Society, *Symphony No. 4*
- Culture.pl, *Symphony No. 4 – Witold Lutosławski*
- Fryderyk Chopin Institute, Los Angeles □□
- Wise Music Classical, 2018□ □□ □□□
- Los Angeles Times, “Still Discovering”
- The Independent, “Tuning in to tradition”
- Adrian Thomas, “One Last Meeting: Lutosławski, Szymanowski and the Fantasia”
- Los Angeles Times, “Philharmonic reclaims Lutoslawski’s Fourth”
- Wise Music Classical, “Salonen Selects Lutosławski”
- Los Angeles Philharmonic, Lutosławski □□□ □□ □□
- MusicWeb International, Salonen·LA Phil 1993□ □□ □□
- MusicWeb International, Hannu Lintu □□ □□
- Broad Street Review, Dalia Stasevska □□ □ □□□

Piano Concerto

Piano Concerto

정보

개요
곡명: Concerto for Piano and Orchestra / Koncert na fortepian
작곡가: Witold Lutosławski (1913–1994)
작곡 시기: 1987–1988년
초연: 1988년 8월 19일, Salzburg Festival, Krystian Zimerman 피아노, Witold Lutosławski 지휘, Austrian Radio Orchestra
성격: 독주 피아노와 관현악을 위한 네 악장 협주곡. 네 악장이 쉬지 않고 이어지며 전체 연주 시간은 약 27 분이다.

IMSLP: List of works by Witold Lutosławski

Wikipedia: Piano Concerto (Lutosławski)

Witold Lutosławski의 Concerto for Piano and Orchestra는 Krystian Zimerman에게 헌정된 후기 협주곡으로 , 1악장의 네 구역, 2악장의 Presto, 피아노 독주의 Largo, 샤콘느를 암시하는 피날레를 한 호흡으로 연결한다. 1악장은 네 구역의 대비로, 2악장은 피아노와 관현악의 moto perpetuo로, 3악장은 독주 피아노의 recitative와 cantilena로, 4악장은 반복 주제와 피아노 에피소드가 어긋나는 chain-form으로 조직된다. 독주와 합주가 같은 박자 안에서만 움직이지 않는 ad libitum 구간도 이 네 악장을 잇는 작곡 원리다

.

출판 정보와 자료

Salzburg Festival은 이 작품을 위촉했고, Lutosławski는 초연 독주자 Krystian Zimerman에게 작품을 헌정했다. National Institute of Fryderyk Chopin의 기록은 1971년에도 Salzburg와 협주곡 위촉을
논의했으나 성사되지 않았고, 1987–88년에 다시 위촉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한다. Culture.pl은 1988년 1월 20일 완성일을 기록하며, Lutosławski Society와 IRCAM은 작곡 기간을 1987–88년으로 제시한다.

초연은 1988년 8월 19일 Salzburg Festival에서 열렸다. Krystian Zimerman이 피아노를 맡고 Lutosławski 가 지휘했으며 , 악단은 자료에 따라 Austrian Radio Orchestra, Austrian Radio Symphony Orchestra 또는 ORF Symphonieorchester로 표기된다. Lutosławski Society는 공연장을 Kleines Festspielhaus로
구체화하고 , Salzburg Museum 소장 포스터는 같은 날짜의 ORF-Symphonieorchester 공연과 두 사람의
이름을 확인한다.

출판사는 지역에 따라 Chester Music과 Polskie Wydawnictwo Muzyczne(PWM)로 나뉜다. Wise Music Classical의 작품 페이지는 표제를 *Concerto for Piano and Orchestra [Koncert na fortepian]*으로 적고 1988년 작품, 독주 피아노, 27분으로 제시한다. 공개된 작품 페이지는 출판권을 명시하지만 초판 연도와

판번호는 싣지 않는다. 작품의 작곡 ·초연 연대와 출판권 정보는 서로 다른 서지 항목으로 제시된다.

소요 시간

Wise Music Classical과 Lutosławski Society는 전곡을 약 27분으로 제시한다. 네 악장은 중간에 멈추지
않고 이어지지만 각 악장의 종결은 분명하게 들리도록 설계되었다 . 출판사 미디어는 악장별 표기를 1악장 ca. 110, 2악장 Presto–attacca, 3악장 ca. 85, 4악장 ca. 84로 제시한다. Society 카탈로그는 3악장을 Largo MM=40–45로 적어, 이 악장의 수치 표기가 자료와 단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 준다.

편성

Wise Music의 약식 편성은 3(2pic)33(Ebcl:bcl)3(cbn)/4231/timp.3perc/hp/str 이다. 이를 악기군으로 풀면 다음과 같다.

독주 피아노
플루트 3(피콜로 겸임 2), 오보에 3
클라리넷 3(E♭ 클라리넷과 베이스 클라리넷 관련 겸임 표기 포함)
바순 3(콘트라바순 겸임 포함)
호른 4, 트럼펫 2, 트롬본 3, 튜바 1
팀파니와 타악기 3명
하프, 현악기군

Lutosławski Society와 Polish Music Center의 약식 표기는 특수 목관의 겸임과 타악기 수를 조금씩 다르게 적는다. 공개된 편성표가 공통으로 확인하는 범위는 독주 피아노, 목관 3관 편성, 금관 4·2·3·1, 팀파니 ·타악기, 하프, 현악기군이다 . 세부 파트 배치와 겸임 악기의 실제 분담은 판본별 총보 ·파트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네 악장의 연속 구조

1악장: 네 구역의 대비

1악장은 네 구역으로 나뉜다. 첫째와 셋째 구역은 가볍고 때로 변덕스러운 nonchalant 성격을 보이며, 둘째와 넷째 구역은 넓은 cantilena로 대비된다. 마지막 구역은 악장 전체의 고점으로 나아간다. 도입에서는 목관이 지정된 짧은 선율 패턴을 공통 박자 없이 반복하는 ad libitum 음향군을 만들고, 뒤이어 피아노와 관현악이 상세히 기보된 재료로 대화를 시작한다.

Lutosławski Society는 이 악장이 고전 협주곡의 주제적 이원성을 환기한다고 설명하면서도 , 고전 소나타 형식을 그대로 복제한 악장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네 구역의 순서는 전통적 대비를 후기 작곡 언어로 재배치하는 형식적 틀로 기능한다.

2악장: Presto와 moto perpetuo

2악장은 Presto의 빠른 운동으로 시작해 피아노와 관현악의 상호작용이 촘촘한 흐름을 이룬다. Wise Music은 이를 오케스트라를 배경으로 피아노가 벌이는 빠른 추격, 즉 moto perpetuo로 설명한다. 피아노의 운동과 관현악의 반응이 이어지다가 후반에 차분히 가라앉으며 , 멈추지 않고 3악장의 독주 도입을 준비한다.

3악장: 피아노 독주의 recitative와 Largo

3악장은 관현악 없이 피아노만 연주하는 recitative로 문을 연다. 피아노는 이어서 노래하는 듯한 Largo 주제를 독자적으로 제시하고, 중간부에서 관현악이 들어오며 갑작스럽고 극적인 대비를 만든다. 마지막에는
관현악 반주 없이 cantilena가 돌아온다. 이 배치는 느린 악장을 처음부터 낭만적인 총주로 시작하지 않고, 독주자의 말하기와 노래가 합주를 불러들이는 순서로 구성한다.

4악장: 샤콘느와 chain-form

4악장은 바로크 샤콘느 (chaconne)를 암시한다. 반복되는 오케스트라 주제는 전통적인 화음열 대신 짧은 음과 쉼으로 이루어지며 , 이 주제는 피아노가 차례로 내놓는 에피소드와 함께 두 개의 층을 만든다. Chain-form 에서는 오케스트라 주제의 시작 ·끝과 피아노 에피소드의 시작 ·끝이 서로 맞지 않는다. 두 층은 작품 후반에 한 번만 함께 모인다.

종결부에서 오케스트라 주제는 쉼을 줄인 짧은 형태로 피아노 없이 전 악기에 나타난다. 이어서 오케스트라를
배경으로 피아노의 fortissimo recitative가 나오고, 짧은 presto coda가 작품을 끝낸다. 반복과 에피소드의
비동기적 결합은 피날레 전체의 조직 원리이며, 마지막 결합은 그 원리를 한순간에 수렴시키는 사건이 된다.

Ad libitum과 협주곡적 대화
Lutosławski는 Wise Music에 실린 1988년 작곡가 프로그램 노트에서 자신의 음악에 즉흥 연주가 없다고 명시한다. Ad libitum 구간에서도 모든 음높이와 리듬 재료는 기보되어 있으며, 연주자들이 공통의 박자 분할 없이 각자 자신의 파트를 혼자 연주하듯 진행하는 점이 전통적인 기보와 다르다. 그 결과 피아노와 관현악은 음 재료를 잃지 않은 채 서로 다른 시간층을 만들고, 유연하고 변덕스러운 리듬 표면이 생긴다.

이 원리는 1악장 도입의 목관 음향군과 4악장의 chain-form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 1악장에서는
공통 시간 분할을 풀어 놓는 방식이 작은 음향군을 만들고, 4악장에서는 반복 주제와 피아노 에피소드의
경계를 어긋나게 한다. 작곡가가 말한 chance 요소는 음고 조직에 종속된 기법으로 제시되며, 연주자가 음을 임의로 선택하는 방식과 구별된다.

초연과 초기 수용

Salzburg 초연은 위촉 축제, 초연 독주자, 작곡가 지휘가 한 자리에서 만난 공연이었다 . Culture.pl은 초연이 관객 ·비평가 ·연주자에게 열광적으로 받아들여졌고 , 이후 작품이 폴란드 피아니스트들의 레퍼토리에 빠르게 들어갔다고 기록한다. Lutosławski Society는 폴란드 초연을 1988년 Warsaw Autumn 폐막 콘서트로 제시한다.

Lutosławski는 1990년 인터뷰에서 자신의 협주곡 안에 Chopin, Liszt, Brahms가 만든 피아니즘의 전통을 환기하고 싶었다고 말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 발언은 특정 선율의 인용보다 피아노 협주곡 장르와 연주 전통을

의식한 작곡가의 자기 설명에 가깝다. 초연의 성공과 폴란드 연주자들의 후속 연주는 이 작품이 후기
현대음악의 협주곡 레퍼토리로 정착하는 경로를 보여 준다.

녹음과 연주 자료

Lutosławski Society의 음반 목록은 Zimerman과 Lutosławski가 함께한 것으로 소개되는 DG 녹음, Paul Crossley와 Esa-Pekka Salonen의 Sony 녹음, Leif Ove Andsnes와 Franz Welser-Möst의 EMI 녹음, 그리고 Zimerman과 Simon Rattle이 Berliner Philharmoniker와 녹음한 DG 판을 열거한다. 이 목록은 작품의 녹음 계보와 연주자 구성을 확인하는 자료다.

MusicWeb International의 2016년 리뷰는 DG 4794518에 수록된 Zimerman·Berliner Philharmoniker·Simon Rattle의 2013년 녹음과 2015년 발매를 소개하면서 , 이전 녹음과 비교해 높게 평가한다. 그 평가는 해당 리뷰어의 청취 판단으로 제시된다. 해당 녹음의 25분 54초라는 시간과 기관 자료의 약 27분 표기는 실행 시간과 반올림의 차이로 함께 성립한다.

주요 자료

Wise Music Classical, Concerto for Piano and Orchestra
Witold Lutosławski Society, Catalogue raisonné
Culture.pl, Piano Concerto
PTNA Piano Music Encyclopedia, Piano Concerto
IRCAM Brahms, Concerto for Piano and Orchestra
National Institute of Fryderyk Chopin, Salzburg
Salzburg Museum, ORF-Symphonieorchester poster Lutosławski Society, Discography
MusicWeb International, Zimerman/Rattle recording review

Cello Concerto



개요
곡명: Concerto for Cello and Orchestra (Koncert wiolonczelowy)
작곡가: Witold Lutosławski (1913–1994)
장르: 독주 첼로와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단일 연속 운동
작곡 시기: 1969–1970년, 1970년 7월 완성
초연: 1970년 10월 14일, 런던 Royal Festival Hall. Mstislav Rostropovich가 독주하고 Edward Downes 가 Bournemouth Symphony Orchestra를 지휘했다.
위촉ㆍ헌정 : Royal Philharmonic Society가 Calouste Gulbenkian Foundation의 지원으로 위촉했으며 , Rostropovich에게 헌정되었다 .

IMSLP: List of Compositions Featuring the Cello/Concertante Works

Wikipedia: Cello Concerto (Lutosławski)

Lutosławski의 Concerto for Cello and Orchestra는 독주 첼로와 관현악이 휴지 없이 연주하는 한 악장의 협주곡이다 . 작곡가가 제시한 네 구획, Introduction, Four Episodes, Cantilena, Finale 가 순서대로 이어지며, 독주 첼로의 반복음에서 시작해 금관의 개입과 여러 대화 장면을 거쳐 큰 합주와 빠른 Coda에 이른다. 이 네 구획은 독립 악장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 운동 안에서 독주 첼로와 관현악의 역할이 바뀌는
지점을 표시한다.

출판 정보와 판본

Wise Music Classical의 작품 표제는 *Concerto for Cello and Orchestra [Koncert wiolonczelowy]*이며 국제 출판사는 Chester Music Ltd, 폴란드 지역의 권리는 Polskie Wydawnictwo Muzyczne가 맡는다. Witold Lutosławski Society의 Catalogue raisonné도 1969–1970년, Royal Philharmonic Society와 Calouste Gulbenkian Foundation의 위촉, Rostropovich 헌정, 1970년 London 초연을 같은 작품으로 정리한다.

Gresham College의 Adrian Thomas 강연은 Paul Sacher Foundation에 보존된 스케치와 short score를 바탕으로 작곡 과정을 설명한다. 1970년 7월 27일 Lutosławski가 출판사에 마지막 페이지를 끝냈고 연주 시간이 약 24분이라고 알린 기록도 이 자료에 소개된다. 이 강연은 자필 스케치와 short score, Danuta가 필사한 full score의 관계를 연구 자료로 제시한다.

소요 시간

전곡은 약 24분이다. Wise Music Classical과 IRCAM은 24분, LA Philharmonic은 23분으로 제시하며, 이 차이는 기관의 반올림과 연주 속도에서 생긴다. 네 구획은 약 24분의 전곡 안에서 휴지 없이 이어진다.

편성

독주 첼로와 다음 관현악을 사용한다.

목관: 플루트 3(세 주자 모두 피콜로 겸함), 오보에 3, 클라리넷 3(제 3주자는 베이스 클라리넷 겸함),
바순 3(제 3주자는 콘트라바순 겸함)
금관: 호른 4, 트럼펫 3, 트롬본 3, 튜바
타악ㆍ건반 : 팀파니, 타악 주자 3명, 하프, 피아노, 첼레스타
현악: 바이올린 Iㆍ II,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Wise Music Classical, Lutosławski Society, IRCAM의 약호는 트럼펫 3을 공통으로 적고, LA Philharmonic 의 요약 페이지는 트럼펫 2로 표기한다. 개별 타악기 목록과 악장별 더블링은 공개 약호보다 출판 파트보에서 확인해야 하는 세부다.

네 구획의 진행

Introduction

독주 첼로가 한 음 D를 약 1초 간격으로 되풀이하며 시작한다. Lutosławski는 이 상태에 indifferente 라는 말을 붙였고, 그 사이에 grazioso, un poco buffo ma con eleganza, marziale 같은 짧은 성격을 끼워 넣었다. 다른 제스처가 나타나도 다시 D로 돌아오는 동안 독주자는 아직 관현악과 접촉하지 않는다.

반복 D의 마지막 변형 뒤에는 트럼펫이 한 음과 fanfare 성격의 신호로 끼어든다. 작곡가 설명에 따르면 첫 에피소드는 이 개입 뒤 약 5초의 쉼을 거쳐 시작되며, 독주 첼로가 혼자 유지하던 시간에 관현악의 외부 신호가 처음 들어온다.

Four Episodes

네 에피소드에서 첼로는 목관, 타악기, 현악기의 작은 집단과 차례로 대화를 시도한다. 매번 금관이 대화를 끊고, 에피소드 사이의 쉼은 반복될수록 짧아진다. Lutosławski가 사용한 성격 표시는 첫 부분의 soave 와 scherzoso, 더 규칙적인 박을 느끼게 하는 두 번째 에피소드, precipitando 와 tremolando 가 두드러지는 세 번째 에피소드, 오스티나토와 이중음이 늘어나는 네 번째 에피소드로 이어지는 변화를 가리킨다.

이 구획의 내부 시간은 ad libitum 으로 풀어 놓은 부분과 지휘되는 부분이 맞물려 결정된다. 네 에피소드의
음높이 재료와 순서는 작곡가가 정하지만, 각 연주자의 세부 리듬은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금관의 재등장은 작곡가가 정한 전환 신호로 기보되어 있다.

Cantilena

반복 D가 다시 나타난 뒤 독주 첼로가 molto espressivo, dolente 의 긴 선율을 연주한다. Wise Music Classical은 먼저 더블베이스의 낮은 E가 받치고, 이어 세분된 독주 현악이 동반한다고 설명한다. 앞선

에피소드의 짧은 제스처와 달리 이 구획은 한 선율을 오래 이어 갈 시간을 제공한다.

독주 파트에는 4분음 진행도 있다. Lutosławski의 프로그램 노트는 각 음이 서로 합쳐져 glissando처럼 들리지 않도록 개별 음을 분명히 내도록 요구한다. Rostropovich는 출판 단계에서 독주 파트의 운지를 편집했고, 그 편집이 출판 독주 파트에 반영되었다 .

Finale

Cantilena 를 끝내는 일부 금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지점에서 큰 오케스트라 tutti가 들어와 Finale 를 연다. 독주 첼로가 매우 빠른 세 구간을 연주하면 서로 다른 작은 악기군이 차례로 끼어들고, 마지막에는 오케스트라가 정점에 이른 뒤 첼로가 길게 신음하는 듯한 구절을 낸다. 그 뒤 짧고 빠른 Coda가 이어져 도입부의 밝은 성격을 되돌린다.

LA Philharmonic은 이 결말을 독주자와 오케스트라의 전통적인 응답 관계가 뒤집힌 사례로 설명하고, 마지막을 첼로의 우세로 들을 수 있다는 해석도 소개한다. 이 해석은 기관 해설과 연주자의 관점으로, Lutosławski가 작성한 프로그램 노트의 설명과는 구별된다.

제한된 우연성과 협주곡의 실연 조건

악보는 지휘되는 구간과 ad libitum 구간을 분리한다. 후자에서는 시작 신호와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는
순간에만 한 박을 지휘하고, 내부의 세부 진행은 연주자들이 독립적으로 이어 간다. 즉흥성은 세부 시간 관계에 한정되고, 음 재료ㆍ구간 길이ㆍ전환 신호는 작곡가가 기보했다.

작곡가의 프로그램 노트가 말하는 gay cello, angry trumpets 같은 표현은 음악 밖의 줄거리를 부여하는
문장이 아니라 대조적인 음의 분절과 몸짓을 찾도록 돕는 비유다. Lutosławski는 프로그램 노트에서 이
표현들이 음악 밖의 이야기나 정치적 프로그램을 뜻하지 않으며, 연주자가 대비를 찾도록 돕는다고 설명했다. Rostropovich의 정치적 위치와 냉전기의 환경이 개인과 집단, 억압과 저항의 알레고리로 연결되면서 후대 수용의 한 갈래가 형성되었다 . 이 독법은 작곡가의 음악적 설명과 다른 수용 맥락에 놓인다.

작곡 과정과 초연 이후

RPS의 초기 접촉 시점은 기관 문서와 작곡가의 후대 회고에서 1966년과 1968년으로 다르게 전해지지만 , 위촉 주체와 Rostropovich 헌정은 일치한다. Lutosławski는 1970년 3월 무렵 세 부분을 마쳤다고 알렸고, 7 월 27일 마지막 페이지를 완성한 뒤 10월 런던 초연을 준비했다.

초연 뒤 10월 15일 Bournemouth, 10월 16일 Exeter에서 이어 공연되었고 , 1971년 Copenhagen에서는 Erling Blöndal Bengtsson, Danish Radio Symphony Orchestra, Herbert Blomstedt가 연주했다. LA Philharmonic은 1983년 3월 3일 Daniel Rothmuller와 Lutosławski가 참여한 공연을 미국 서부 초연으로 기록한다. 이 공연들은 1970년 세계 초연과 별개의 후속 확산 경로다.

녹음과 연주 해석

Rostropovich는 초연 독주자이면서 Lutosławski가 지휘한 1974년 EMI 녹음의 독주자였다 . Polish Music Center의 음반 목록에는 Roman Jabłoński, Polish Radio National Symphony Orchestra, Lutosławski 지휘의 1976년 녹음 (PNCD 042)도 올라 있다.

Gary Higginson은 2010년 MusicWeb 비평에서 Christian Poltéra, ORF Vienna Radio Symphony Orchestra, Jac van Steen의 BIS-SACD-1777을 다루며, 한 음을 중심으로 한 도입과 무휴 연주를 작품의 첫 인상으로 짚었다. 그는 Poltéra의 도입부가 세부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오케스트라의 음향이 이전 Rostropovich 녹음보다 잘 들린다고 평가했다. 이는 Higginson이 해당 녹음에 대해 제시한 판단이다.

Fiona Maddocks는 2012년 The Guardian에서 Paul Watkins, BBC Symphony Orchestra, Edward Gardner의 Chandos 녹음을 평했다. Maddocks는 Watkins의 독주를 유려한 기품으로 묘사하고, 섬세한
첼로 동기와 트럼펫의 거친 신호, 목관의 분출이 거친 Finale 로 이어지는 청취 결과를 구체적으로 적었다. 같은 비평은 RPS 위촉과 1970년 런던 초연을 음반의 작품사적 배경으로 연결한다.

주요 자료

Wise Music Classical, Concerto for Cello and Orchestra: 출판 표제, 권리, 편성, 연주 시간,
초연과 Lutosławski의 프로그램 노트
Witold Lutosławski Society, Catalogue raisonné: 작곡 연대, 편성 약호, 위촉ㆍ헌정 , 초연,
작곡가 입장
Gresham College, Adrian Thomas, “Lutosławski’s Cello Concerto”: RPS 문서, 스케치, 작곡 과정, 초기 공연
On Polish Music, Lutosławski 프로그램 노트 부록: 네 구획, 반복 D, 금관 개입, ad libitum, 작곡가의 비유 설명
IRCAM, Concerto for Cello and Orchestra: 기관 메타데이터 , 편성, 위촉과 초연

LA Philharmonic, Cello Concerto: 23분 표기, 서부 초연, 구조 해설과 기관의 연주 관점

National Institute of Fryderyk Chopin, Mstislav Rostropovich: Rostropovich의 위촉 요청과
협업 배경
Polish Music Center, Lutosławski discography: Rostropovich와 Roman Jabłoński 녹음 이력 MusicWeb International, Gary Higginson (2010), BIS-SACD-1777 review: Poltéra 녹음의 도입부와 오케스트라 세부에 대한 비평
The Guardian, Fiona Maddocks (2012), Lutoslawski: Orchestral Works III review: Watkinsㆍ Gardner 녹음의 연주 관찰과 작품사적 맥락

Concerto for Orchestra

Concerto for Orchestra

정보

개요
곡명: Concerto for Orchestra (Koncert na orkiestrę)
작곡가: Witold Lutosławski (1913–1994)
작곡: 1950–1954년
헌정: Witold Rowicki
초연: 1954년 11월 26일, Warsaw, Witold Rowicki 지휘, Warsaw National Philharmonic Orchestra 작품 범위: 독주 악기 대신 오케스트라 각 파트가 협주적으로 대화하는 3악장 관현악 작품
전곡 소요 시간: 약 28–30분, 출판사 안내는 약 29분

IMSLP: Witold Lutosławski 작품 목록

Wikipedia: Concerto for Orchestra (Lutosławski)

Witold Lutosławski의 Concerto for Orchestra는 개별 독주자 대신 목관, 금관, 타악기, 건반, 현악 파트가 차례로 전면에 나서는 3악장 관현악 협주곡이다 . 전곡은 Intrada: Allegro maestoso, Capriccio notturno e Arioso: Vivace, Passacaglia, Toccata e Corale: Andante con moto–Allegro giusto의 순서로 배열된다. 폴란드 민속 선율은 원형을 재현하는 재료가 아니라 새로운 화성, 대위, 관현악 질감으로 변형되어 세 악장을 연결한다.

작곡 배경과 초연

1950년 Warsaw Philharmonic의 음악감독 Witold Rowicki는 새로 재편된 악단을 위해 오케스트라의 역량을 보여 주는 작품을 Lutosławski에게 요청했다. 민속 음악을 어느 정도 바탕으로 삼되 연주자에게 과도한
난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목적이 제시되었고 , Lutosławski는 약 4년에 걸쳐 작품을 완성했다. 초연은 1954 년 11월 26일 Warsaw에서 Rowicki가 Warsaw National Philharmonic Orchestra를 지휘하는 형태로 열렸으며, 작품은 Rowicki에게 헌정되었다 .

작곡 시기는 1949년 이후 폴란드에서 민속 재료를 요구하던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공식 분위기와 겹친다. Boston Symphony Orchestra의 해설은 Lutosławski가 민속적이고 온음계적인 선율을 비온음계 대위와
색채 화성 안에 배치했다고 설명한다. 1987년 Richard Dufallo 인터뷰를 인용한 같은 해설에서 Lutosławski 는 기능 음악을 통해 이러한 재료를 실험한 뒤 더 진지한 대형 작품으로 나아갔다고 회고한다. 이 작품의
민속성은 정책적 요구와 작곡가의 독자적인 화성과 관현악 사고가 만나는 지점에서 형성된다.

민속 선율의 지역은 자료에 따라 Masovia 또는 Mazowsze로 제시되고, 일부 목록은 Kurpie를 언급한다. 출판사와 공연기관이 공통으로 확인하는 사실은 Oskar Kolberg이 수집한 폴란드 민요가 작곡의 재료가 되었으며, Lutosławski가 이를 리듬, 음색, 화성 문맥 속에서 변형했다는 점이다. 개별 선율의 지역명을 작품

전체의 단일 분류로 확대하기보다 , 변형 방식과 관현악 배치가 구조를 만드는 과정을 중심에 둔다 .

출판 정보와 판본

작품에는 통용되는 작품번호가 따로 붙지 않으며 , 영어 제목 *Concerto for Orchestra*와 폴란드어 제목 *Koncert na orkiestrę*가 함께 사용된다 . 국제 다수 지역의 출판권은 Chester Music이 , 폴란드와 일부 지역의 권리는 Polskie Wydawnictwo Muzyczne(PWM)이 보유한다 . PWM Cat. 4710은 2000년에 발행된 영어 , 독일어 , 폴란드어 연구용 판본으로 160쪽이며 , Chester Music의 CH55276은 150쪽 연구용 총보로 유통된다 .

1954년 초연 당시의 원보와 현행 연구용 총보가 어떻게 편집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비평판 서문은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 위 판본의 발행 연도는 현행 연구용 판본의 서지로 제시되며 , 최초 출판 연도와 구분된다 . 연주자는 대여된 총보와 파트의 편성 표기를 기준으로 삼고 , 출판사 약호에서 목관 더블링과 타악기 수가 압축되어 보이는 현상은 판본의 표기 범위 차이로 이해할 수 있다 .

소요 시간

Wise Music, PWM, IRCAM은 전곡을 약 29분으로 제시하고 Boston Symphony Orchestra는 약 28분으로 안내한다 . 녹음은 Yan Pascal Tortelier의 음반이 약 28분 , Antoni Wit의 음반이 약 29분 , Edward Gardner의 음반과 Krzysztof Urbański의 음반이 각각 약 28분으로 기록되어 약 28–30분의 범위를 이룬다 . 악장별로는 제 1악장 약 6–7분 , 제 2악장 약 5–6분 , 제 3악장 약 15–16분이며 , 마지막 악장이 앞의 두 악장보다 길다 .

Chandos의 Edward Gardner 음반은 제 3악장을 두 트랙으로 나누어 기록한다 . 트랙 분할은 제 3악장 내부 구간을 나눈 편집이며 , Naxos 및 Chandos의 세부 시간 차이도 녹음과 편집 조건이 다른 결과다 .

편성

파트	악기
목관	3 Flutes(제 2·제 3주자는 Piccolo 겸용), 3 Oboes(제 3주자는 English Horn 겸용), 3 Clarinets(제 3주자는 Bass Clarinet 겸용), 3 Bassoons(제 3주자는 Contrabassoon 겸용)
금관	4 Horns, 4 Trumpets, 4 Trombones, Tuba
타악기	Timpani, Xylophone, Glockenspiel 또는 Orchestra Bells, Cymbals, Tam-tam, Tambourine, Snare Drum, Tenor Drum, Bass Drum, 여러 음역의 북 , Military Drum
건반 ·현악	Celesta, Piano, 2 Harps, 1st and 2nd Violins, Violas, Cellos, Double Basses

공연기관의 상세 목록은 타악기를 자일로폰 , 글로켄슈필 , 심벌즈 , 탐탐 , 탬버린 , 스네어드럼 , 테너드럼 , 큰북 , 여러 크기의 북으로 나누어 적는다 . 필요한 타악기 주자 수와 개별 배치는 판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작품의 고정 편성으로 특정하지 않는다 . Piano는 오케스트라 안의 건반 파트로 편성되며 , 두 대의 Harp와

Celesta도 색채를 이루는 구성 요소다.

제목의 협주곡적 원리는 독주 악기와 반주 악기의 대립보다 오케스트라 내부의 교대와 주제 인계에 있다. Boston Symphony Orchestra와 Wise Music은 저음 현에서 시작한 주제가 다른 악기군으로 넘어가고, 각 섹션이 한때 솔리스트처럼 기능한다고 설명한다. 이 설명은 대편성 자체보다 파트 사이의 대화가 작품의 공연 형태를 결정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악장별 구성

I. Intrada: Allegro maestoso

약 6–7분의 첫 악장은 반복되는 F-sharp 페달 위에서 진행된다. 저음 현이 Masovia 또는 Mazowsze 민요에서 나온 선율을 제시하고, 목관과 금관을 거치며 같은 생각이 다른 음색과 음역으로 확대된다. Wise Music은 이 악장을 A–B–A로, PWM 계열 해설은 더 세분된 아치형 도식으로 설명하지만 , 두 자료 모두 넓은 중앙부와 응축된 귀환을 공통으로 지적한다. 마지막에는 페달 F-sharp가 높은 음역으로 옮겨가며 처음의 재료가 조용히 압축된다.

II. Capriccio notturno e Arioso: Vivace

약 5–6분 동안 빠른 Capriccio와 노래하는 Arioso가 같은 Vivace 흐름 안에서 대비된다. 외곽부는 민첩한 목관과 현악, 예기치 않은 색채 변화로 움직이고, 중앙 Arioso는 금관이 시작하는 넓은 선율로 관현악의
호흡을 바꾼다. Wise Music은 Arioso가 별도의 느린 악장이 아니라 Capriccio와 같은 빠르기를 유지한다고 설명한다. 응축된 재현은 나뉜 더블베이스와 여러 크기의 북 위에서 사라지며 다음 악장으로 넘어갈 긴장을 남긴다. 제목의 접속사는 자료에 따라 e 또는 ed로 표기된다.

III. Passacaglia, Toccata e Corale: Andante con moto–Allegro giusto

약 15–16분의 마지막 악장은 전곡의 누적 중심이다. Passacaglia는 더블베이스와 하프에서 시작하는 순환적 저음 주제를 여러 악기 조합으로 변형하며, 반복이 진행될수록 관현악 색채가 두꺼워진다 . Toccata는 이 축적을 빠른 운동으로 전환하고, Corale는 오보에와 클라리넷에서 모습을 드러낸 뒤 플루트의 선율과 함께 더 넓은 관현악으로 퍼진다.

Corale는 관현악으로 만든 노래하는 부분이며 성악 합창과 구별된다. LA Phil의 해설은 이 코랄의 중심 선율이 새로 만들어졌고 , 플루트가 연주하는 대위 선율이 또 다른 폴란드 민요에서 파생되었다고 설명한다. 마지막 코다에서는 Passacaglia의 변형 주제와 앞 악장의 재료가 돌아오며, Toccata와 Corale가 겹친 뒤 전 오케스트라의 종결로 작품을 닫는다.

공연과 녹음

LA Phil의 기관 기록은 1965년 2월 11일 Paul Kletzki가 지휘한 첫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 공연을 남긴다. Boston Symphony Orchestra의 기록에는 1967년 12월 Skrowaczewski가 지휘한 첫 보스턴 공연과 1968

년 Tanglewood 공연이 이어진다 . 이런 초기 재공연 기록은 Warsaw 초연 이후 작품이 미국 레퍼토리로 이동한 과정을 보여 준다 .

녹음	녹음 · 발매 정보	전곡 시간
Yan Pascal Tortelier / BBC Philharmonic	Chandos CHAN 9421, 1993년 녹음 , 1996년 발매	약 28분
Antoni Wit / Polish National Radio Symphony Orchestra	Naxos 8.553779, 1998년 발매	약 29분
Edward Gardner / BBC Symphony Orchestra	Chandos CHSA 5082, 2010년 녹음 · 발매	약 28분
Krzysztof Urbański / NDR Sinfonieorchester	Alpha ALPHA232, 2014년 녹음	약 28분

네 음반은 제 3악장의 길이 , 트랙 분할 , 녹음 시기와 오케스트라가 서로 다르다 . 이 차이는 세 악장 구조 안에서 기록 방식이 달라진 결과이며 , 각 악기군이 독주자처럼 교대하는 콘체르탄테 원리를 서로 다른 음향으로 남긴다 .

주요 자료

- Wise Music Classical: *Concerto for Orchestra*: 작곡 배경 , 악장 구조 , 편성 악호 , 29분 표기 .
- PWM: *Concerto for Orchestra*: 작품 연대 , 대여 판본 , 민속 선율 변형과 현행 판본 정보 .
- Boston Symphony Orchestra: *Concerto for Orchestra*: 초연 , 상세 편성 , 민속 재료와 악장별 해설 , 1987년 인터뷰 전언 .
- LA Phil: *Concerto for Orchestra*: 1965년 로스앤젤레스 초연 기록 , 편성 , Passacaglia와 Corale 해설 .
- IRCAM: *Koncert na orkiestrę*: 작곡 연대 , 출판사 , 초연과 작품 시간 .
- Lutosławski Society: Catalogue raisonné: 작품 목록과 헌정 · 위촉 맥락 .
- Chandos: CHAN 9421, Chandos: CHSA 5082: Tortelier와 Gardner 녹음의 연주자 , 시기 , 트랙 정보 .
- Naxos: 8.553779: Antoni Wit 녹음의 악장별 발매 정보와 시간 .
- Presto: Alpha ALPHA232: Krzysztof Urbański 녹음 정보 .

Funeral Music

정보

개요
곡명: Muzyka żałobna (프랑스어 Musique funèbre, 영어 Funeral Music)
작곡가: Witold Lutosławski (1913–1994)
작곡 시기: 1954–1958년
완성: 1958년 1월 10일
헌정: à la mémoire de Béla Bartók
초연: 1958년 3월 26일, Katowice. Polish Radio National Symphony Orchestra, Jan Krenz 지휘
장르: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단악장 작품
범위: 전곡. 하나의 악장 안에서 Prologue, Metamorphoses, Apogeum, Epilogue 네 연결 구간이 이어진다.

IMSLP: List of works by Witold Lutosławski

Wikipedia: Musique funèbre

Witold Lutosławski의 Muzyka żałobna는 Béla Bartók를 추모하기 위해 쓴 현악 오케스트라 작품이다. 영어권에서 Funeral Music으로 알려진 이 곡은 네 개의 독립 악장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된 악장으로 진행되며 , Prologue 의 카논, Metamorphoses 의 축적, 짧은 Apogeum 의 절정, Epilogue 의 역순 회귀가 한 곡선을 이룬다.

출판 정보와 헌정

Jan Krenz는 1954년 Bartók 사망 10주기를 기념할 작품을 Lutosławski에게 요청했다. 1955년으로
예정했던 기념 시점을 넘겨 1958년 1월 10일에 완성되었고 , 같은 해 3월 26일 Katowice에서 Krenz가 지휘한 Polish Radio National Symphony Orchestra가 초연했다. 기관에 따라 초연 악단의 영어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Krenz와 Katowice라는 장소 ·날짜는 Wise Music, Lutosławski Society, Culture.pl의 기록이 일치한다.

악보는 PWM과 Chester Music이 관리한다. Wise Music의 작품 페이지는 현악 오케스트라와 네 연결 구간, 약 14분의 길이를 제시하고, Lutosławski Society 카탈로그는 작품을 à la mémoire de Béla Bartók 로 등록한다. Culture.pl은 1959년 Polish Composers’ Union Award와 UNESCO International Rostrum of Composers의 최고 선정이 이 작품의 초기 수용을 넓혔다고 기록한다. 이는 작품의 음악적 우열을 정하는 표지가 아니라, 1958년 초연 뒤 국제적인 관심이 형성된 경로를 보여 주는 수용 기록이다.

소요 시간

전곡은 약 14분이다. PWM과 National Library of New Zealand의 악보 서지는 약 13분 30초, Wise Music 은 14분으로 안내하며, Chandos CHAN 9421의 1995년 녹음은 12분 48초로 표시된다. 템포와 반복, 녹음 편집에 따라 실제 길이가 달라지므로 13분 30초 –14분을 기관 자료에 근거한 범위로 제시한다.

편성

관악기와 타악기 없이 현악 오케스트라만 사용한다. 악보의 성부는 다음 열 개로 나뉜다.

제 1–4바이올린
제 1–2비올라
제 1–2첼로
제 1–2더블베이스

Lutosławski Society는 분할된 각 성부의 권장 주자 수를 별도로 제시하고, 다른 대여 자료는 더 큰 수치를 안내한다. 이 차이는 성부 수와 실제 주자 수가 서로 다른 문제임을 보여 준다. 편성의 핵심은 열 개의 현악 성부가 같은 음정 재료를 서로 어긋나게 연주하며 카논과 밀도를 만들어 내는 데 있다.

한 악장 안의 네 구간

네 구간은 별도의 악장 번호가 아니라 하나의 표현 곡선을 이룬다. 첫 구간의 선율적 제시가 두 번째 구간에서 변형되고, 세 번째 구간에서 가장 높은 밀도로 모인 뒤, 마지막 구간이 시작의 카논 원리를 역순으로
돌려보낸다 .

I. Prologue

Prologue 는 트리톤과 단 2도 관계를 바탕으로 한 12음열을 교대 카논으로 제시한다. Lutosławski Society는 카논의 성부가 두 개에서 여덟 개로 늘어난다고 설명하며, Wise Music은 이 선율적 재료가 다음 구간의
변형을 준비한다고 해설한다. 현악 성부가 차례로 들어오면서 음정의 간격과 선율선의 겹침이 조금씩 늘어나고, 단악장 전체가 사용할 음향 문법이 이 첫 구간에서 정해진다.

II. Metamorphoses

이 구간에서는 Prologue 의 음열이 여러 방향으로 변형되며 음역과 밀도가 넓어진다. Lutosławski Society의 분석은 음열이 5도권을 따라 이동하는 변형들을 거치고 주변 음이 점차 밀집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이 부분의 진행은 새로운 주제를 차례로 도입하는 방식보다 같은 음정 재료가 성부 수와 음향 스펙트럼을 바꾸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III. Apogeum

Apogeum 은 작품의 짧은 절정이다. Culture.pl은 12마디로, Lutosławski Society는 32개 화음으로 세부
단위를 설명하지만 , 넓은 음역에 퍼져 있던 소리가 구성음을 줄이며 중앙의 일치음으로 수렴한다는 기능은 두 자료에서 공통된다. 이 압축은 Metamorphoses 에서 누적된 음정과 성부의 긴장을 한 지점에 모은 뒤 곧바로
다음 구간으로 넘긴다.

IV. Epilogue

마지막 구간은 Prologue 의 카논 원리를 역순으로 되돌린다. Wise Music은 강한 음량으로 시작한 뒤 카논이 다시 나타나고 독주 첼로만 남는다고 설명하며, Society는 절정 이후 음역과 구성음이 줄어들어 출발점으로 돌아간다고 해설한다. 처음과 같은 재료가 다른 방향으로 소진되면서 , 곡은 새로운 종결 주제를 덧붙이지 않고 처음의 질문을 조용히 닫는다.

Bartók를 향한 헌정과 Lutosławski의 언어
Lutosławski는 1964년 발언에서 Bartók의 음악을 모방하려 한 것이 아니며, 유사성이 있다면 같은 세대가 공유한 음악적 학습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고 Culture.pl이 전한다. 이 발언은 헌정의 사실과 양식적 친연성을 구분하게 한다. 작품 제목의 장송성도 특정 장례 의식이나 문학적 줄거리를 묘사한다는 뜻이 아니라, Bartók 10주기를 기념한 위촉에서 비롯되었다고 Lutosławski Society는 설명한다.

그럼에도 이 작품은 Lutosławski가 자신의 음정 언어를 새롭게 조직한 중요한 시기로 평가된다. 작곡가는 12 음 안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움직이는 수단을 얻었다고 1958년 프로그램에서 말했고, Society는 Funeral Music 이후의 화성 ·카논 문제가 Jeux vénitiens 와 후기의 제한된 우연성으로 이어졌다고 정리한다.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에서 보여 준 활력과 대비되는 엄격함이지만 , 두 작품을 단절된 양식으로 나누기보다 작곡가가
이전의 경험을 다른 음향 방법으로 재구성한 과정으로 보는 편이 자료에 부합한다.

수용과 연주 기록

Funeral Music 은 1958년 Warsaw Autumn에서 주목받았고 , 1959년의 두 수상 뒤 Lutosławski의 국제적
위치를 넓혔다고 Culture.pl이 기록한다. 작품의 짧은 길이와 현악만으로 이루어진 편성은 이후 연주에서 서로 다른 주자 수와 템포를 허용하지만 , 네 구간의 연속성과 Prologue · Epilogue 의 대칭은 주요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Chandos CHAN 9421은 BBC Philharmonic Orchestra와 Yan Pascal Tortelier가 1995년에 녹음한 사례다. 레이블이 제시한 트랙은 네 구간을 따로 표시하지만 곡 자체는 단악장으로 남아 있으며, 12분 48초라는
길이는 기관이 제시하는 약 14분과 다른 특정 연주의 값이다. 이 차이는 작품의 형식이 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템포와 녹음 조건이 달라졌다는 뜻이다.

주요 자료

Wise Music Classical – Musique funèbre

Witold Lutosławski Society – Catalogue raisonné

Culture.pl – Musique funèbre
PWM – Funeral Music

IRCAM – Musique funèbre [Muzyka żałobna]

National Library of New Zealand – 악보 서지

- Chandos CHAN 9421 – Yan Pascal Tortelier □□

Chain 2 for violin and orchestra

정보

개요
곡명: Chain 2 [Łańcuch 2], Dialogue for Violin and Orchestra
작곡가: Witold Lutosławski (1913–1994)
장르: 바이올린과 관현악을 위한 협주적 작품
작곡 시기: 1984–1985년
위촉 ·헌정: Paul Sacher가 Collegium Musicum을 위해 위촉했으며 , Sacher에게 헌정되었다 .
초연: 1986년 1월 31일 Zurich Grosser Tonhallesaal에서 Anne-Sophie Mutter, Collegium Musicum Zürich, Paul Sacher가 초연했다.
출판사: Chester Music, PWM

IMSLP: List of works by Witold Lutosławski

Wikipedia: Witold Lutosławski

Witold Lutosławski의 Chain 2는 독주 바이올린과 관현악이 서로 다른 시간 층을 유지하면서 대화하는 약 18 분의 네 부분 작품이다. 각 부분은 Ad libitum과 A battuta라는 표제로 연주 방식의 차이를 드러내며, 마지막 부분은 A battuta–Ad libitum–A battuta의 세 구간으로 이루어진다 . 작품의 핵심은 선율을 차례로 주고받는 협주곡의 대화보다, 두 음악 가닥이 서로 다른 시점에 시작하고 끝나면서 한 형식을 함께 만드는 방식에 있다.

출판 정보

Wise Music Classical은 이 작품을 Chain 2 [Łańcuch 2], Dialogue for Violin and Orchestra로 표기하고 Chester Music을 출판사로 제시한다. 폴란드와 일부 지역의 권리는 PWM이 관리한다. Lutosławski는 1983 년의 Chain 1과 1986년의 Chain 3을 함께 언급했지만 , 작곡가의 노트와 Lutosławski Society의 카탈로그는
세 작품이 하나의 순환 모음곡을 이루지 않는 독립 작품이라고 명시한다. 따라서 제목의 숫자는 작품군 안의 식별자이지 이 곡 안의 악장 번호가 아니다.

Chain-form의 두 가닥
Lutosławski가 말한 chain-form은 구조적으로 독립된 두 가닥의 구간이 서로 다른 시점에 시작하고 끝나는 형식이다. 두 층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한쪽의 진행이 이어지는 동안 다른 쪽에서 새 구간이 열리며 전체 표면에 겹침이 생긴다. 이 원리 때문에 형식의 연결은 종지 뒤에 새 단락을 붙이는 방식보다, 진행 중인 음악 위에 다른 진행이 열리는 방식으로 들린다.

American Symphony Orchestra의 해설은 이 곡에서 독주 바이올린이 한 가닥을, 앙상블이 다른 가닥을
대표한다고 설명한다. 독주부가 분명한 선율을 유지하는 동안 관현악은 그 선율의 단순한 반주가 아니라
별도의 시간 흐름을 만든다. 두 층은 협주곡의 주고받기처럼 교대하기도 하지만, 구간의 경계가 맞지 않는
순간에는 한쪽이 계속되는 가운데 다른 쪽의 재료가 겹쳐 들어온다.

네 부분의 시간 배열

첫 부분은 Ad libitum이다. 여기서 자유로운 시간은 연주자가 모든 요소를 임의로 바꾼다는 뜻이 아니다.
Lutosławski는 고정된 음고와 구조적 조건 안에서 각 성부가 서로 완전히 동기화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제한된
우연성을 사용했다. American Symphony Orchestra는 이때 지휘자가 박을 치지 않고 각 연주자가
카덴차처럼 자기 파트를 진행한다고 설명한다. 독주 바이올린과 관현악의 시간이 분리되면서 , 작품을
움직이는 두 가닥이 처음 모습을 드러낸다.

둘째 부분 A battuta에서는 시간 조직이 지휘와 박에 맞춰 정렬된다. Lutosławski Society의 해설은 이
부분을 세 구간으로 나누고, 서로 조밀도가 다른 음정 관계가 첫 번째 절정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A
battuta는 Ad libitum의 유동성을 없애는 단순한 속도 변화가 아니라, 분리되어 있던 층을 한 번에 묶어
에너지를 모으는 구간이다.

셋째 부분은 다시 Ad libitum으로 돌아간다. Society는 이 부분에서 바이올린의 존재감이 커지며 서사가 잠시
숨을 고르는 듯한 단절이 생긴다고 말한다. 첫 부분에서 두 가닥의 원리를 소개했다면 , 셋째 부분은 그 원리를
더 노출된 독주 선과 유동적인 관현악 층으로 되돌려 놓는다.

넷째 부분은 A battuta–Ad libitum–A battuta로 이어진다. 마지막의 세 구간은 앞선 두 방식의 배열을 한 번
더 압축하며, Society는 이를 곡 전체의 절정으로 설명한다. 박에 맞춘 시작과 끝 사이에 자유로운 시간이
삽입되었다가 다시 박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종결은 하나의 선율을 길게 확장하는 대신 서로 다른 시간 체계가
차례로 맞물리는 방식으로 형성된다.

바이올린과 관현악의 대화

이 곡의 협주성은 독주자가 관현악보다 앞에 나서는 데서만 생기지 않는다. Dialogue for Violin and
Orchestra라는 부제처럼, 바이올린과 앙상블은 서로 다른 음색과 시간의 가닥을 맡는다. LA Philharmonic은
Lutosławski가 Chain 2에서 개방적인 우연 기법과 정교한 기악 작성을 결합했다고 설명한다. 독주
바이올린의 긴 선율은 후기 작품의 선율 중심성을 보여 주지만, 관현악은 그 선을 화성적으로 채우는 배경이
아니라 독자적인 링크를 계속 이어 간다.

Lutosławski의 작곡가 노트는 Ad libitum 부분에서도 우연성이 고정된 매개변수 안에서 작동한다고 강조한다
. 음고와 구조의 틀이 남아 있기 때문에, 매 공연의 차이는 무제한 즉흥연주가 아니라 성부가 서로 만나는
순간과 음색의 겹침에서 발생한다. 반대로 A battuta에서는 지휘자의 박과 합주가 시간의 기준을 제공한다. 네
부분의 배열은 이 두 방식이 번갈아 나타나는 큰 구조를 만든다.

편성과 음향

편성은 독주 바이올린, 플루트 2(두 주자 모두 피콜로 겸함), 오보에 2(제 2 주자는 잉글리시 호른 겸함), 클라리넷 2(제 2 주자는 베이스 클라리넷 겸함), 바순 2로 이루어진다 . 금관은 호른과 튜바 없이 트럼펫 2와 트롬본 2를 둔다. 팀파니와 타악기 2명, 피아노와 첼레스타, 현악 5부가 뒤따르며, Wise Music은 현악을 6·6·4·4·2로 제시한다.

호른과 튜바를 생략하고 겸임 악기와 비교적 작은 현악군을 배치한 편성은 바이올린과 개별 악기군의 윤곽을 드러낸다. 피아노는 첼레스타와 겸임하고, 타악기는 두 시간 층의 경계를 강조하는 별도 색채를 제공한다. 타악기의 세부 악기 목록은 기관별 표기가 달라 출판사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초연과 이후 공연

1986년 1월 31일 Zurich의 Grosser Tonhallesaal에서 Anne-Sophie Mutter가 Collegium Musicum과 함께 연주하고 Paul Sacher가 지휘한 공연이 초연이었다 . 이 작품은 Sacher의 위촉과 헌정으로 만들어졌으며 , Mutter 공식 초연 목록과 연보는 날짜, 독주자, 악단, 지휘자의 조합을 일치시켜 기록한다. Lutosławski Society는 몇 달 뒤 Warsaw Philharmonic, Kazimierz Kord, Krzysztof Jakowicz가 폴란드 초연을 맡았다고 덧붙인다.

Los Angeles Philharmonic의 기록에 따르면 이 악단의 첫 공연은 1990년 3월 29일 Gennady Rozhdestvensky의 지휘와 Mutter의 협연으로 이루어졌다 . 이는 Zurich 세계초연 이후 다른 악단과
지휘자가 작품을 공연한 기록이다.

녹음과 수용

Mutter 공식 연보의 1988년 음반 목록에는 Chain 2와 Partita를 묶은 Lutosławski 프로그램이 실려 있으며, Anne-Sophie Mutter, Paul Sacher, Philharmonia Orchestra와 BBC Symphony Orchestra가 함께
기재되어 있다. 초연 이후 작품이 작곡가와 초연자의 협업으로 음반화된 사례다.

Naxos가 2010년에 발매한 Lutosławski’s Last Concert 자료에는 New Music Concerts와 Lutosławski 지휘의 Chain II가 네 트랙으로 수록되어 있다. 카탈로그의 악장별 시간은 1부 4분 1초, 2부 5분 12초, 3부 5 분 40초, 4부 4분 45초다. 공식 작품 페이지의 약 18분이라는 표기와 음반 트랙의 19분 38초는 녹음 ·편집 조건에 따른 길이 차이를 보여 준다. 이 곡의 수용은 독주 바이올린의 기교만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서로 다른 시간 층을 얼마나 명료하게 분리하고 다시 결합하는지가 음반의 결과를 좌우한다.

소요 시간

Wise Music Classical과 IRCAM, Los Angeles Philharmonic은 전곡을 약 18분으로 제시한다. Naxos의 한 음반은 네 트랙을 합쳐 19분 38초로 기록하므로 , 실제 공연에서는 지휘와 Ad libitum 구간의 상호 작용에
따라 몇 분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개별 부분의 대표 시간은 Naxos 트랙처럼 1부 약 4분, 2부 약 5분, 3부 약 6분, 4부 약 5분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수치를 모든 연주에 고정된 기준으로 삼지는 않는다.

주요 자료

- Wise Music Classical: Chain 2 [Łańcuch 2], Dialogue for Violin and Orchestra
- The Witold Lutosławski Society: Catalogue raisonné
- IRCAM: Chain 2
- Los Angeles Philharmonic: Chain 2
- American Symphony Orchestra: Chain 2, Dialogue for Violin and Orchestra
- Anne-Sophie Mutter: Timeline
- Anne-Sophie Mutter: Uraufführungen & zeitgenössische Werke
- Naxos: Lutosławski, Partita / Interlude / Chain I and II

Livre pour orchestre

정보

개요
곡명: Livre pour orchestre [Książka na orkiestrę]
작곡가: Witold Lutosławski (1913–1994)
장르: 대편성 관현악 작품
작곡 시기: 1968년
위촉 ·헌정: City of Hagen이 위촉했고, 초연 지휘자 Berthold Lehmann에게 헌정되었다 .
초연: 1968년 11월 18일 독일 Hagen에서 Hagen 시립 오케스트라와 Berthold Lehmann의 지휘로
초연되었다 .
출판사: Chester Music, PWM

IMSLP: List of works by Witold Lutosławski

Wikipedia: Livre pour orchestre

Witold Lutosławski의 Livre pour orchestre는 네 개의 장 (Chapitre)과 그 사이의 세 간주 (Intermède)로 이루어진 20분 안팎의 관현악 작품이다. 여섯 개의 프로그램 항목으로 나뉘어 보이지만, 세 번째 간주가 최종 장으로 이어지며 마지막 장이 앞선 세 장보다 훨씬 길게 확장된다는 점이 전체 형식을 결정한다. 제목의 ‘책 ’은 장면을 단순히 나열한다는 뜻보다 서로 다른 음향 단위를 한 권의 구조로 묶는 작곡 구상을 가리킨다.

장과 간주의 공식 배열

작품의 프로그램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Premier chapitre
2. Premier intermède
3. Deuxième chapitre
4. Deuxième intermède
5. Troisième chapitre
6. Troisième intermède et chapitre final

Lutosławski Society와 IRCAM은 이 여섯 항목을 네 장과 세 간주의 관계로 설명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간주는 장 사이에 놓인 짧은 연결부이고 , 세 번째 간주는 독립적으로 닫히지 않은 채 최종 장과 겹친다. 따라서 작품을 여섯 개의 동등한 악장으로 세면 마지막 장의 비대칭적인 규모와 간주의 기능을 놓치게 된다.

‘책 ’이라는 제목과 위촉

Lutosławski Hagen 1968 , Hagen Orchestra of Westphalia
Berthold Lehmann . 1968 11 18 Hagen Lehmann Hagen

Society Eli-Eri Moura · Moura François Couperin *Livre pour clavecin*
Bach *Orgelbüchlein* .

Ad libitum

American Symphony Orchestra , Lutosławski

Lutosławski Society *Livre*

I II III

. Wise Music John Casken I 20

. II , II III .

Casken ‘ ’

편성

편성은 플루트 3(그중 2명은 피콜로 겸임), 오보에 3, 클라리넷 3, 바순 3(콘트라바순 겸임)으로 이루어진 삼관 목관이다. 금관은 호른 4, 트럼펫 3, 트롬본 3, 튜바를 둔다. 팀파니와 타악기 주자 3명, 하프, 피아노, 첼레스타
, 현악 합주가 더해진다. Wise Music은 이를 3(2pic)333(cbn)/4331/timp.3perc/hp.pf.cel/str 로 줄여 쓰고, IRCAM도 같은 악기군과 타악기 수를 제시한다. 세부 현악 인원과 겸임 악기의 교대 시점은 기관 자료에 없으므로, 여기서는 확인된 악기군과 겸임 관계만 제시한다.

초연 이후의 공연과 녹음

Los Angeles Philharmonic은 1990년 3월 29일 Gennady Rozhdestvensky 지휘로 이 작품을 처음
연주했으며 , Anne-Sophie Mutter가 협연했다. 이는 1968년 Hagen 초연 이후 다른 기관과 지휘자가 남긴
후속 공연 기록이다.

Antoni Wit가 지휘한 Polish National Radio Symphony Orchestra의 Naxos 음반은 1996년 6월 4~5일 카토비체 폴란드 라디오 콘서트홀에서 녹음되었고 , Livre pour orchestre를 20분 37초에 담았다. Presto Music에 실린 Gramophone Classical Music Guide 2010의 평가는 이 연주와 녹음의 완성도를 높게 보면서, 작품이 Lutosławski의 제 2교향곡 뒤에 나온 신선하고 대담한 관현악 작품이라고 설명한다. 평론은 자유로운
기보와 정밀한 기보가 교대하는 과정을 Wit가 능숙하게 형상화한다고 짚는다. 이 녹음에서는 간주의 유동적인 시간과 장의 정밀한 합주가 한 작품 안에서 대비된다.

소요 시간

Wise Music Classical은 전곡을 22분, IRCAM과 Lutosławski Society 행사 자료는 약 20분으로 제시한다. Naxos 음반의 실제 트랙은 20분 37초이므로, 공연과 녹음에서의 대표 범위는 약 20~22분으로 잡을 수 있다. 세 간주는 각각 약 20초로 안내되며, 간주 III는 최종 장과 겹치므로 이 시간값만으로 별도의 형식 경계를 정할 수 없다.

출판 정보

Wise Music Classical은 Chester Music을 출판사로 제시하고, 폴란드와 일부 지역의 판권은 PWM이
관리한다고 안내한다. IRCAM도 Chester Music을 출판사로 기록한다. 작품 페이지와 Society 카탈로그는
1968년 작곡, Hagen 위촉, Lehmann 헌정, 네 장과 세 간주의 공식 배열을 함께 확인하게 한다.

주요 자료

Wise Music Classical: Livre pour orchestre [Książka na orkiestrę]

The Witold Lutosławski Society: Catalogue raisonné

IRCAM: Livre pour orchestre

American Symphony Orchestra: Chain 2, Dialogue for Violin and Orchestra

- Lutosławski Society □□ □□ PDF
- Eli-Eri Moura: Lutoslawski’s Approach to Sound Masses and Form in Livre pour Orchestre
- Anne-Sophie Mutter: Uraufführungen & zeitgenössische Werke
- Los Angeles Philharmonic: Chain 2
- Presto Music: Lutosławski, Livre pour orchestre, Cello Concerto, Novelette & Chain 3